

제23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대구오페라하우스 제작 | 개막작
야외 콘서트 오페라

브라보 대구! 비바 오페라!
Bravo, Daegu! Viva, Opera!



G. Bizet **카르멘** Carmen

코오롱 야외음악당
Kolon Open Air Music Hall

대구오페라하우스 제작 | 개막작
야외 콘서트 오페라

Carmen

G. Bizet 카르멘

10. 2(금) 19:00 - 3(토) 19:00
코오롱 야외음악당

Carmen

G. Bizet 카르멘



개요

작곡 조르주 비제(1838-1875)
대본 앙리 메이야크, 뤼도비크 알레비
원작 프로스페르 메리메 소설 '카르멘'
배경 1820년경 스페인 세비아
초연 1875. 3. 3. 파리 오페라-코미크 극장
형식 4막
언어 프랑스어(국문·영문 자막 제공)
시간 100분(인터미션 없음)
연령 전체관람가

주요 제작진

예술감독 이경재
지휘 양진모
연출 이회수

출연진

카르멘 M. Sop. 김정미, 최승현
돈 호세 Ten. 정호윤, 박신해
에스카미요 Bar. 공병우, 오승용
미카엘라 Sop. 이명주, 이윤경
주니가 Bass 진영국
모랄레스 B. Bar. 한준헌
프라스키타 Sop. 윤성희
메르세데스 M. Sop. 정세라
단카이로 Ten. 유호제
레멘다도 Ten. 정진환

디오오케스트라
대구오페라콰이어
카이로스 댄스 컴퍼니

INFORMATION

Composer Georges Bizet (1838–1875)
Libretto Henri Meilhac, Ludovic Halévy
Based on Prosper Mérimée's Carmen
Background Seville, c. 1820
Premiere 3 Mar 1875, Paris
Form 4 Acts
Language French (KOR/ENG surtitles)
Running Time 100 min (no intermission)
Age All ages

CREATIVE TEAM

Artistic Director Lee Kyoungjae
Conductor Yang Jinmo
Director Lee Hoesoo

CAST

Carmen M. Sop. Kim Jungmi, Choi Seunghyun
Don José Ten. Chung Hoyoon, Park Shinhae
Escamillo Bar. Paul Kong, Oh Seungyong
Micaëla Sop. Lee Myungjoo, Yi Yunkyoung
Zuniga Bass Jin Youngkug
Moralès B. Bar. Han Junheon
Frasquita Sop. Yoon Sunghwe
Mercédès M. Sop. Jung Sera
Le Dancaïre Ten. You Hoje
Le Remendado Ten. Jeong Jinhwan

Daegu International Opera Orchestra
Daegu Opera Choir
Kairos Dance Company

Contents

목차

인사말 Greetings	06
작곡가 소개 Composer	08
지휘자 노트 Conductor's Note	10
연출가 노트 Director's Note	12
작품소개 Exposition of Carmen	14
줄거리 소개 Synopsis	18
등장인물 Characters	19
무대디자인 Scenic Design	20
주요제작진 Creative Team	22
출연진 및 출연단체 Cast	24
제작진 Staff	34
프로덕션 스태프 Production Staff	38

Greetings

인사말



대구광역시장
추 경 호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광역시장 추경호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대구를 아름다운 오페라 선율로 물들일 '제23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의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30일간의 축제를 함께 즐기실 시민 여러분과 국내외 오페라 애호가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03년, 국내 최초의 오페라 전용극장인 대구오페라하우스의 개관과 함께 시작된 대구 국제오페라축제는 지난 23년간 누적 관객 50만 명 이상, 전 세계 108개국에 참여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오페라 축제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대구'의 자부심이자 예술성과 대중성을 두루 갖춘 대표 문화예술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올해 대구국제오페라축제는 '브라보 대구! 비바 오페라!(Bravo, Daegu! Viva, Opera!)'를 슬로건으로 주요 공연장과 야외무대 곳곳에서 공연이 펼쳐져, 도시 전체가 오페라의 무대가 됩니다.

특히, 개막작으로 세계적인 명작 비제의 <카르멘>을 야외무대에서 선보여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였으며, <투란도트>, <마술피리>와 같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명작부터, 창작 오페라 <미인>과 민간오페라단 초청작 <양촌리 러브 스캔들>까지 다채롭고 창의적인 무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축제의 아름다운 선율과 감동이 관객 여러분의 가슴에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축제를 위해 열정과 정성을 다해주신 모든 예술인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시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3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예술감독
이 경 재

무더웠던 여름의 열기가 가시고, 결실의 깊이를 더해가는 계절을 맞았습니다.

대구오페라하우스는 제23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를 10월 한 달간 개최하며, 다섯 편의 오페라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대구를 비롯한 국내외의 예술가와 오페라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교류와 축제의 장을 마련합니다. 예술가들이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은 이제 풍성한 오페라의 결실이 되어 관객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특별히 올해 축제는 대구오페라하우스의 리노베이션으로 인해 오페라극장을 벗어나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대구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브라보 대구! 비바 오페라!"라는 슬로건 아래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그동안 대구오페라하우스를 찾아주셨던 관객 여러분의 발걸음을 기억하며, 이제 여러분이 계신 대구 곳곳의 공연장으로 직접 찾아갑니다. 그 첫 무대로 조르주 비제의 <카르멘>이 오늘 힘차게 축제의 막을 올립니다. 오페라하우스의 리노베이션으로 인해 개막작을 실내극장이 아닌 이곳 코로롱 야외음악당에서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대구에서 만나기 어려웠던 야외 오페라를 오랜만에 선보이며, 이를 통해 더욱 많은 관객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게 되어 더욱 뜻깊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콘서트 오페라 형식으로 펼쳐지는 <카르멘>은 강렬한 서곡을 시작으로 '하바네라', '세기디야', '투우사의 노래', '꽃의 노래' 등 관객 여러분께서 익숙하게 접해오신 명곡들이 가득한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극장 안에서 만나던 오페라 음악을 가을밤 야외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보다 가깝고 편안하게 즐기는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무대를 위해 뜨거운 열정과 노력으로 함께해주신 출연진과 제작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평소와는 다른 환경에서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 안팎으로 애써주신 대구오페라하우스 관계자 및 대구시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축제가 대구 시민 여러분께 한층 친근하게 다가가고, 이를 계기로 대구의 오페라가 도시 곳곳에서 더욱 힘차게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omposer

작곡가 소개

Georges Bizet

조르주 비제 1838-1875

프랑스 오페라를 대표하는 작곡가 조르주 비제는 1838년 파리에서 성악 교사인 아버지와 피아노에 능했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보였으며, 8세부터 아버지에게 본격적으로 음악을 배우기 시작했다. 10세에 파리 음악원에 입학한 뒤 샤를 구노와 프로망탈 알레비 등에게 가르침을 받았으며, 19세의 나이에 당시 젊은 음악가에게 최고의 영예로 여겨지던 로마 대상을 수상했다. 로마 대상 수상으로 이탈리아에서 유학한 뒤 파리로 돌아온 비제는 편곡과 피아노 레슨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면서 작곡에 매진했다. 수많은 오페라 작품에 착수했지만 상당수가 미완성으로 남거나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이후 파리 리рик 극장의 의뢰로 오페라 <진주 조개잡이>를 완성했으나, 아름다운 음악에도 불구하고 초연 당시에는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1872년에는 알퐁스 도데의 동명 희곡을 위한 음악 <아를의 여인>을 작곡했다. 연극 자체는 초연 당시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지만, 비제가 이 음악에서 발췌해 만든 관현악 모음곡은 큰 호응을 얻으며 오늘날까지 널리 연주되고 있다. 비제는 극적인 표현에 뛰어났으며, 음악을 통해 등장인물의 성격과 심리를 생생하게 그려냈다. 빈틈없는 무대 구성과 세련된 작곡 기법 역시 그의 음악을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다. 그리고 비제가 36세가 되던 무렵, 그의 음악적 세계가 집약된 오페라 <카르멘>이 탄생한다. 꾸준한 창작 활동으로 음악성을 인정받으면서도 생전에 큰 흥행작을 만나지 못했던 비제에게 <카르멘>은 그만큼 각별한 작품이었다. 그는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음악을 수정하며 창작에 몰두했다.

1875년 3월 3일 파리 오페라 코미크에서 초연된 <카르멘>은 당시 관객들에게 매우 파격적인 작품이었다. 노동자와 군인, 밀수꾼 등 현실적인 인물들을 무대의 중심에 세우고,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카르멘과 사랑에 집착하는 돈 호세의 비극을 거침없이 그려냈기 때문이다. 기존 오페라 코미크의 관습과 달리 어둡고 현실적인 소재와 비극적인 결말을 담은 작품은 초연 당시 엇갈린 평가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비제는 <카르멘> 초연으로부터 불과 3개월 뒤인 1875년 6월, 36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자신이 남긴 마지막 오페라가 훗날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작품 가운데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사후 <카르멘>은 유럽 각지에서 공연되며 빠르게 명성을 얻었고, 세계 오페라 무대의 핵심 레퍼토리로 자리 잡았다.

후대의 음악가와 사상가들도 <카르멘>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비제의 정교하고 경제적인 오케스트레이션을 높이 평가했으며,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바그너의 음악과 대비되는 비제 음악의 명료함과 생명력에 깊이 매료되었다. 요하네스 브람스 역시 <카르멘>을 여러 차례 관람할 만큼 이 작품을 열렬히 사랑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비제의 이름과 함께 가장 먼저 떠올리는 작품 역시 <카르멘>이다. 생전에는 충분한 성공을 누리지 못했던 비제는 이 한 편의 걸작을 통해 프랑스 오페라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19세기 오페라사에 뚜렷한 흔적을 남긴 작곡가로 기억되고 있다.



1. 도시의 밤하늘에서 만나는 《카르멘》

2026년 대구국제오페라축제의 개막작 《카르멘》은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야외 콘서트 오페라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공연은 오늘날 오페라 공연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콘서트 오페라 형식으로 진행된다. 성악과 오케스트라가 만들어내는 음악 자체에 집중함으로써 《카르멘》이 지닌 음악적·극적 힘을 보다 직접적으로 전달하고자 한다.

야외라는 새로운 공간 역시 이번 공연의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다. 오페라는 극장 안에서만 존재하는 예술이 아니라 도시와 사람들의 삶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술이기도 하다. 객석과 무대, 그리고 그 너머의 도시 공간이 하나의 공연장이 되는 순간, 《카르멘》은 19세기 파리에서 탄생한 작품을 넘어 오늘 대구의 가을밤에 살아 있는 이야기로 다시 태어난다.

특히 《카르멘》은 음악만으로도 인물과 극적 상황을 강렬하게 드러내는 작품이다. 카르멘의 자유와 욕망, 돈 호세의 사랑과 집착, 미카엘라의 순수함, 에스카미요의 화려함은 오케스트라와 성악의 음악적 언어 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비제의 음악이 지닌 극적인 힘 자체를 관객에게 전달하는 것에 집중하고자 한다. 도시의 밤하늘 아래 울려 퍼지는 《카르멘》이 관객들에게 오페라를 ‘보는’ 경험을 넘어, 오페라를 ‘듣고 느끼는’ 새로운 경험이 되기를 기대한다.

2. 《카르멘》- 오페라의 새로운 인간을 발견하다

1875년 파리 오페라 코미크에서 초연된 《카르멘》은 19세기 오페라의 흐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 작품이다.

비제는 이 작품에서 왕과 영웅, 신화 속 인물이 아닌 거리의 사람들과 노동자, 군인, 밀수꾼, 투우사와 같은 현실의 인간을 무대의 중심으로 끌어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과 욕망, 질투와 폭력, 자유와 죽음을 낭만적으로 이상화하지 않고 매우 직접적으로 무대 위에 드러냈다. 특히, 카르멘이라는 인물은 당시 오페라의 여성 주인공과는 상당히 다른 존재였다. 그녀는 누군가의 사랑을 기다리는 여성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인물이다. 그녀에게 사랑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며, 그 자유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위해 돈 호세와의 사랑은 비극으로 치닫는다.

이러한 인간의 현실과 심리를 음악과 극의 중심에 놓았다는 점에서 《카르멘》은 낭만주의 오페라에서 새로운 사실주의적 미학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에 위치한다.

오늘날까지 《카르멘》이 끊임없이 공연되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카르멘의 이야기는 150여 년 전 스페인의 이야기가 아니다. 사랑을 소유하려는 인간과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인간의 충돌이라는 점에서, 《카르멘》은 여전히 우리의 이야기다.

3. 비제의 음악 - 《카르멘》에서 베리스모까지

《카르멘》의 음악은 프랑스 오페라의 세련된 전통과 스페인의 춤과 리듬, 민속적인 색채가 독창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하바네라, 세기디야, 집시의 노래, 투우사의 행진곡과 같은 음악은 작품에 강렬한 색채를 부여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이국적 장식에 머물지 않는다. 각각의 음악은 인물의 성격과 삶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극적 장치가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음악이 인물의 심리를 따라간다는 점이다.

카르멘의 음악은 하바네라의 리듬과 유연한 선율, 춤의 감각 등을 통해 그녀의 관능성과 자유로운 성격을 드러낸다. 반면 돈 호세의 음악은 처음에는 서정적이고 순수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불안과 질투, 집착으로 변화한다. 미카엘라와 에스카미요 역시 서로 다른 음악적 언어를 통해 각자의 성격과 세계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이처럼 음악이 단순히 아름다운 선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직접적으로 만들어내는 방식은 《카르멘》의 중요한 혁신이었다.

이러한 사실주의적 음악극은 이후 등장하는 이탈리아 베리스모 오페라와 중요한 연결고리를 갖는다. 마스카니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와 레온카발로의 《팔리아치》로 대표되는 베리스모는 평범한 인간의 사랑과 질투, 욕망과 폭력, 그리고 삶의 비극을 무대의 중심으로 가져왔다. 《카르멘》 자체를 베리스모 오페라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현실의 인간과 인간의 본능을 음악과 극의 중심에 놓았다는 점에서 이후 베리스모가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미학적 토대를 마련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극적 흐름을 가장 깊이 있게 연결하는 것은 오케스트라다. 비제의 오케스트라는 단순히 성악을 받쳐주는 반주가 아니라, 인물의 내면과 극의 긴장, 때로는 아직 무대 위에 드러나지 않은 운명까지 암시하며 이야기를 이끌어간다. 그 안에는 인간의 자유와 욕망, 사랑과 소유, 그리고 그 끝에서 마주하는 죽음이 있다.

비제는 그 인간을 음악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150여 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다시 그 음악을 통해 인간을 바라본다.

비제의 “카르멘”은 사랑의 비극이기 이전에 자유를 갈망하는 인간과 그 자유를 소유하려는 인간의 충돌에 관한 작품이다. 카르멘에게 사랑은 머물러야 하는 약속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선택하고 떠날 수 있는 자유이다.

반면, 규율과 질서 속에서 살아온 호세는 자신에게 없는 자유를 지닌 카르멘에게 매혹되고, 그녀를 통해 자신이 살아온 세계를 벗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매혹시킨 바로 그 자유를 끝내 감당하지 못한다. 카르멘의 자유를 사랑했지만, 그 자유를 인정하는 대신 소유하려 했고, 그 순간 사랑은 집착과 질투로 변하며 호세 안에 억눌려 있던 본모습을 드러낸다. 두 사람은 사랑이라는 같은 감정에서 출발하지만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그 간극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진다.

이번 프로덕션은 인물들의 욕망과 심리를 ‘콜라주(Collage)’라는 시각적 언어를 통해 무대 위에 구현하고자 한다. 무대 상·하수의 LED와 중앙의 Mesh LED를 하나의 거대한 영상 공간으로 구성하여, 현실적인 장소를 사실적으로 재현하기보다 사진, 회화적 이미지, 그래피티, 텍스트의 흔적, 강렬한 색과 거친 질감 등을 해체하고 재조합하여 각 막의 공간적 분위기와 인물의 심리 상태를 동시에 시각화한다. 특히 여러 면으로 분절된 LED는 하나의 이미지가 완결된 화면으로 제시되기보다 서로 다른 이미지가 중첩되고 충돌하는 구조를 형성한다. 장면에 따라 개별 화면들이 독립적으로 움직이거나 하나의 거대한 이미지로 결합하면서 음악의 리듬과 극적 긴장에 따라 무대의 밀도와 속도를 변화시킨다.

1막의 담배 공장은 도시의 거친 질감과 일상의 에너지를, 2막의 술집은 보다 강렬한 색채와 파편화된 이미지의 움직임을 통해 욕망과 해방의 공간으로 변화시킨다. 3막에서는 색채와 이미지의 밀도를 절제하여 산속의 고립감과 불안정한 심리를 부각하고, 4막의 투우장은 레드와 블랙을 중심으로 군중, 투우장, 축제의 이미지를 폭발적으로 중첩하여 축제의 열광과 다가오는 죽음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형상화한다. 이처럼 영상은 막마다 다른 장소를 만들어내는 동시에 카르멘과 호세의 관계가 변화하는 심리적 궤적을 따라가는 또 하나의 극적 장치가 된다. 또한 이번 무대에서는 오케스트라를 무대 중앙의 단 안에 배치한다.

전막 오페라가 아닌 콘서트 오페라의 형식과 야외무대의 개방된 장소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오케스트라가 드라마의 뒤편에 감춰진 음악적 요소가 아니라, 무대 이미지를 구성하는 시각적 요소이자 극의 에너지를 생성하는 존재로 인식하게 하고, 배우와 합창은 오케스트라의 전면과 후면, 좌우, 상부 단을 넘나들며 연기함으로써 음악과 연극적 행위가 동일한 공간 안에서 직접 충돌하고 호흡하도록 연출하였다.

이러한 시각적 개념은 의상에서도 이어진다. 시대를 고증하는 데 머물지 않고 1940~50년대의 실루엣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여 영상의 복잡성과 대비되는 명료한 인물의 형태를 만든다. 동시에 각각의 인물에게 상징적인 이미지를 부여하여 그들의 욕망과 운명을 의상 속에 투영한다.

카르멘을 관통하는 이미지는 ‘새와 장미’이다. 「하바네라」의 “L’amour est un oiseau rebelle(사랑은 길들여지지 않는 새)”처럼 새는 누구에게도 길들여지지 않는 카르멘의 자유와 독립을 의미한다. 장미는 사랑과 욕망, 유혹의 아름다움을 상징하지만, 그 안에는 가시와 피, 그리고 죽음의 이미지가 함께 존재한다. 특히 2막과 4막에서 카르멘의 의상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장미처럼 매혹적이지만, 그 사랑에 속박되지 않고 자신의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카르멘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드러낸다.

반면 호세는 군인으로 규율과 사회적 질서를 상징하는 인물이지만, 카르멘을 향한 사랑이 집착과 질투로 변하면서 점차 이성적 통제를 잃고 본능과 소유욕에 지배되는 존재로 변모한다. 특히 ‘황소’는 호세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본능과 폭력성을 상징한다.

투우사의 노래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Qu’un œil noir te regarde”의 œil noir(검은 눈)는 호세의 어두운 시선, 즉 카르멘을 끊임없이 주시하는 집착의 시선으로 전환해 볼 수 있다. 에스카미요가 투우를 지배하는 자라면, 호세는 결국 자신의 본능과 질투에 지배되는 황소가 된다. 이러한 상징은 3막 호세와 에스카미요의 대결에서 더욱 선명해지며, 투우장을 벗어난 투우사와 황소의 또 다른 대결로 확장되어 의상의 시각적 대비를 통해 상징화된다.

미카엘라는 카르멘과 정반대의 세계에 위치한다. 절제된 색채는 고향, 평화, 순수함과 안정을 상징한다. 그녀에게도 ‘새’의 이미지를 사용하지만 그 의미는 카르멘과 다르다. 카르멘이 자유를 향해 날아가는 새라면, 미카엘라는 돌아갈 곳을 기억하는 새이다. 동일한 ‘새’의 모티브에 서로 다른 방향성을 부여함으로써, 두 인물은 호세 앞에 놓인 서로 다른 삶의 가능성을 상징한다.

에스카미요는 이들과 달리 자신의 욕망과 세계를 스스로 통제하는 존재이다. 투우라는 행위와 그것을 지배하는 자의 이미지를 통해 자신감과 힘, 삶과 죽음의 경계를 즐기는 인물로 표현한다. 결국 카르멘의 새, 호세의 황소, 에스카미요의 투우, 미카엘라의 귀향하는 새는 각 인물의 성격을 설명하는 장식이 아니라 그들이 삶과 사랑을 대하는 서로 다른 태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시각적 기호가 된다.

무대 위에서 영상과 의상, 빛과 인물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콜라주처럼 끊임없이 겹쳐지고 충돌하며 하나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복잡한 이미지의 중심에는 언제나 카르멘이 있다.

이번 “카르멘”은 자유를 소유하려는 욕망이 결국 사랑하는 존재와 자기 자신까지 파괴하는 과정을 보여주고자 한다. 화려하고 역동적인 이미지가 하나씩 사라진 마지막 순간, 무대에 남는 것은 자신의 자유를 지키려는 카르멘과 그것을 소유하려는 호세의 대면이다. 죽음 앞에서도 카르멘이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것은 사랑보다 더 근원적인 가치였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

Exposition of Carmen

작품소개

치명적인 유혹의 이름, 카르멘

“사랑은 길들일 수 없는 새”

2026년 가을, 대구국제오페라축제가 조르주 비제의 <카르멘(Carmen)>으로 막을 올린다. 올해 축제는 오페라하우스의 수리로 전용 극장을 잠시 떠나 대구의 여러 공간에서 관객과 만난다. 불가피한 일이지만 덕분에 올가을 도시와 오페라가 만나는 방식은 한층 다채로워졌다. 그 첫 무대를 장식하는 작품이 기존의 관습과 경계를 넘어 오페라의 새로운 여주인공을 탄생시킨 <카르멘>이라는 점은 특별한 의미를 더한다.

오페라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카르멘은 낯설지 않은 이름이다. 강렬한 붉은색과 관능적인 이미지, 남성을 파멸로 이끄는 팜 파탈(femme fatale)의 대명사처럼 기억되어 온 카르멘은 오페라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강렬한 개성의 여주인공이다.

조르주 비제(Georges Bizet, 1838-1875)의 오페라 <카르멘>은 프로스페르 메리메(Prosper Mérimée)의 동명 소설을 바탕으로 1875년 파리 오페라 코미크에서 초연되었다. 비제는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보였다.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열 살이 되기 전 파리음악원에 입학하여 당대의 뛰어난 음악가들에게 배웠고, 1857년에는 칸타타 <클로비스와 클로틸드(Clovis et Clotilde)>로 작곡가에게 최고의 영예 가운데 하나였던 로마대상(Prix de Rome)을 수상하며 촉망받는 젊은 작곡가로 이름을 알렸다. 로마 유학 등의 화려한 출발과 달리 파리로 돌아온 뒤의 작곡가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다. 비제는 극음악에서 자신의 길을 찾으려 했고 <진주조개잡이(Les Pêcheurs de perles)>, <아름다운 퍼스의 아가씨(La Jolie Fille de Perth)> 등을 무대에 올렸지만 그가 기대했던 만큼의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생계를 위해 편곡과 피아노 반주 등의 일을 병행해야 했던 그에게 <카르멘>은 오랜 극장 경험과 음악적 역량을 쏟아부은 중요한 작품이었다.

스페인 세비야를 배경으로 담배 공장에서 일하는 집시 여인 카르멘과 그녀에게 매혹되어 자신의 삶을 잃어가는 군인 돈 호세의 비극을 그린다. 그러나 ‘카르멘’을 치명적인 여인과 그 유혹에 빠져 파멸하는 남자의 이야기로만 읽는다면 이 작품의 매력은 절반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카르멘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보다 오히려 자유에 가깝다. 그녀는 원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이 끝났다고 느끼는 순간 떠나버린다. 누구의 소유가 되는 것도, 이미 사라진 감정을 위해 자신을 속이는 것도 거부한다. 그리고 그 선택의 끝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

이러한 카르멘의 모습은 첫 등장과 함께 부르는 ‘하바네라(Habanera)’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다. “사랑은 길들일 수 없는 새”라고 노래하는 그녀에게 사랑은 붙잡아 두거나 명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잡으려 하면 날아가고 피하려 하면 어느새 곁에 다가선다. 사랑에 관한 노래인 동시에 카르멘 자신의 삶을 선언하는 노래다. 그리고 자신에게 무심한 돈 호세를 향해 던지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면 조심하세요”라는 경고에는 앞으로 펼쳐질 두 사람의 관계와 비극이 이미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다.

돈 호세에게 사랑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 고향의 어머니와 약혼녀 미카엘라를 사랑하며 성실한 군인으로 살아가던 그는 카르멘을 만난 뒤 자신이 속했던 세계에서 하나씩 멀어진다. 카르멘의 탈출을 돕고 군인의 의무를 저버리며, 마침내 자신의 삶을 뒤로한 채 밀수꾼들의 세계에 합류한다.

카르멘에게 사랑이 이 순간의 자유로운 선택이라면, 돈 호세에게 사랑은 자신의 삶 전체를 걸어야 하는 절대적인 감정이다. 그 마음이 가장 아름답게 드러나는 순간이 2막의 ‘꽃노래(La fleur que tu m'avais jetée)’다. 돈 호세는 카르멘이 자신에게 던져준 꽃을 감옥에서도 간직했으며, 시들어버린 그 꽃의 향기를 맡으며 그녀를 생각했다고 고백한다. 섬세하게 이어지는 선율은 그의 사랑이 순간적인 욕망이 아니라 깊은 내면에서 자라난 감정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바로 그 진지함 속에 비극의 씨앗도 함께 자라고 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선택한 사랑이기에 돈 호세에게 카르멘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다. 카르멘에게 사랑의 끝이 또 다른 자유의 시작이라면, 돈 호세에게 그것은 자신이 걸어온 삶 전체가 무너지는 순간이다.

두 사람의 차이는 에스카미요와 미카엘라를 통해 더욱 선명해진다. 화려하고 자신감 넘치는 투우사 에스카미요는 불안과 집착에 사로잡혀가는 돈 호세와 대조된다. 유명한 ‘투우사의 노래(Chanson du Toréador)’의 호방한 리듬과 당당한 선율은 군중의 환호를 한 몸에 받는 스타 투우사의 존재감을 단숨에 각인시킨다. 카르멘의 마음이 에스카미요에게 향할수록 돈 호세의 사랑은 질투와 절망의 빛깔을 질게 띈다.

미카엘라는 카르멘과 또 다른 대척점에 서 있다. 그녀는 돈 호세의 고향과 어머니, 그리고 그가 떠나온 평온한 삶을 환기한다. 3막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돈 호세를 찾아가며 부르는 ‘이제 두렵지 않아(Je dis que rien ne m'épouvante)’에서 미카엘라는 두려움에 맞서는 자신의 마음을 다잡는다. 맑고 서정적인 소프라노 선율은 관능적인 리듬과 춤의 움직임이 지배하는 카르멘의 음악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비제는 두 여성의 차이를 말로 설명하기보다 서로 다른 음악적 색채로 들려준다.

음악으로 살아 움직이는 카르멘

오페라 <카르멘>이 15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생생한 힘을 잃지 않는 데에는 무엇보다 비제의 음악이 있다. 그는 미국적인 스페인의 색채를 춤곡의 리듬과 선율, 다채로운 관현악으로 그려내면서 이를 등장인물의 성격과 긴밀하게 결합시켰다. 음악은 단순히 배경을 장식하지 않는다. 인물을 말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며, 때로는 드라마의 방향 자체를 바꾼다.

‘하바네라’의 느린 2박자 리듬과 반음계적으로 흘러내리는 선율은 매혹적이면서도 쉽게 붙잡히지 않는 그녀의 성격을 그대로 닮았다. 이어지는 ‘세기디야(Seguidilla)’에서 유혹은 더욱 적극적인 행동으로 바뀐다. 카르멘은 경쾌한 춤의 리듬에 기대어 릴라스 파스티아의 술집에서 만나자고 노래하며 자신을 감시하던 돈 호세의 마음을 흔든다. 이 순간 음악은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를 넘어 상대를 움직이는 힘이 된다. 카르멘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지 않는다. 그녀의 리듬과 선율, 몸짓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르멘의 성부가 메조소프라노라는 점도 인물의 색채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 풍부한 중저음과 짙은 음색은 카르멘의 관능성과 강인함을 동시에 품는다. 그 곁에는 맑고 서정적인 미카엘라의 소프라노, 섬세한 서정에서 걱정으로 치닫는 테너 돈 호세, 자신감과 화려함을 지닌 바리톤 에스카미요가 자리한다. 서로 다른 네 개의 음색은 곧 서로 다른 네 인물의 세계다. 작곡가는 목소리의 색채만으로도 이들의 관계와 거리를 선명하게 그려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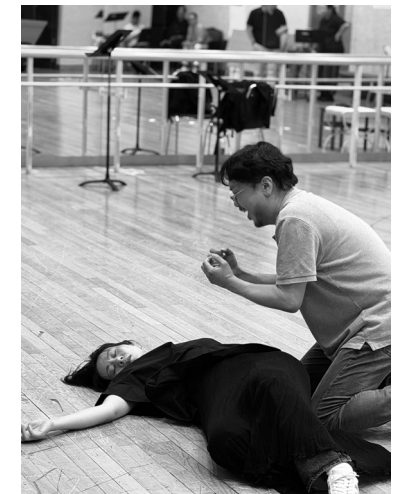
카르멘의 음악이 처음부터 끝까지 관능과 유혹에만 머무는 것은 아니다. 작품이 후반으로 향할수록 그녀를 둘러싼 음악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스며든다. 3막의 카드 장면에서 카르멘은 친구들과 함께 자신의 운명을 점치다가 반복해서 '죽음'을 읽어낸다. 앞선 장면에서 남자들을 매혹시킨 카르멘의 모습은 사라지고, 음악은 갑자기 무겁고 숙명적인 깊이를 얻는다. 그녀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직감하지만 동요하거나 도망치지 않는다. 바로 이 순간 카르멘은 단순한 유혹의 여인을 넘어 자신의 선택과 그 결과까지 스스로 받아들이는 인물로 깊이가 생긴다. 마지막 장면은 이러한 카르멘의 삶과 비제의 음악적 극작술이 한 지점에서 만나는 순간이다. 투우장 안에서는 에스카미요를 향한 군중의 환호가 터져 나오고 축제 음악이 절정을 향한다. 그러나 그 화려함 바로 곁에서 돈 호세와 카르멘은 마지막으로 마주 선다. 투우장의 환희와 두 사람의 파국, 축제와 죽음이 한순간에 겹쳐지는 이 장면은 <카르멘>에서 가장 잔혹하면서도 압도적인 극적 대비를 이룬다. 결국 돈 호세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카르멘을 자신의 손으로 죽인다.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에도 카르멘은 그에게 돌아가는 대신 자신의 선택을 지킨다. 1막의 '하바네라'에서 선언했던 그녀의 삶의 방식이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비극적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카르멘>의 초연은 비제가 기대했던 성공과는 거리가 있었다. 파리 오페라 코미크의 관객들에게 하층 계급의 인물들과 카르멘의 자유분방한 성격,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비극적인 결말은 낯설고 불편하게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작품의 운명이 결정되기까지 비제에게 허락된 시간은 너무 짧았다. 그는 초연으로부터 불과 석 달 뒤인 1875년 6월 3일, 서른여섯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 같은 해 빈에서 공연된 <카르멘>은 새로운 평가를 받기 시작했고, 이후 유럽 각지의 무대를 거치며 빠르게 명성을 넓혀갔다. 차이콥스키, 브람스, 니체를 비롯한 동시대의 작곡가와 지식인들도 이 작품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초연 무대에서 논란의 대상이었던 작품이 얼마 지나지 않아 비제의 이름을 불멸의 것으로 만든 것이다.

오늘날 <카르멘>의 생명력은 '하바네라'와 '투우사의 노래'처럼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선율에만 있지 않다. 비제는 사랑을 서로 다르게 이해하는 인간들을 음악으로 생생하게 형상화하고, 유혹으로 시작된 관계가 사랑과 집착을 지나 파국으로 향하는 과정을 놀라운 밀도로 그려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신의 욕망과 운명을 다른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는 카르멘이 있다.

2026년 가을, 잠시 오페라하우스를 떠난 대구국제오페라축제는 도시를 새로운 무대 삼아 관객과 만난다. 그 첫 무대에서 카르멘은 150여 년 전과 다름없이 자유를 노래한다. 시대가 바뀌고 무대가 달라져도 여전히 도발적이고, 여전히 위험하며, 그래서 더욱 생생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면, 조심하세요."와 함께.

손수연
(오페라평론가/ 단국대 교수)



Synopsis

줄거리

1막 세비야의 담배 공장 앞

위병소 앞 광장. 점심시간이 되자 공장에서 카르멘과 여공들이 나오고 병사들은 여공들에게 말을 걸며 관심을 보인다. 카르멘은 자신을 거들떠도 보지 않는 돈 호세에게 이끌려 그에게 꽃을 던져준다. 여공들이 사라진 후 돈 호세의 약혼녀 미카엘라가 찾아와 그의 어머니가 보낸 편지를 전해주고, 돈 호세는 미카엘라와 결혼하기로 마음먹는다. 한편 공장에서 동료 여공과 싸움을 벌여 체포된 카르멘은 '나를 풀어준다면 당신을 사랑하겠다'며 돈 호세를 유혹하고, 유혹에 넘어간 돈 호세는 실수인 척 카르멘을 놓아준 뒤 감옥에 갇힌다.

2막 릴라스 파스티아의 술집

카르멘과 집시들이 춤판을 벌이고, 투우사 에스카미요가 나타나 카르멘에게 관심을 보이지만 그녀는 출소한 돈 호세를 기다린다. 저녁이 되어 찾아온 돈 호세와 카르멘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중 부대 복귀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들린다. 돈 호세가 군대로 돌아가려 하자 카르멘은 함께 떠나서 자유롭게 살자고 그를 설득한다. 그녀와 연쟁을 벌이던 돈 호세는 카르멘을 찾아온 주니가와 마주치고, 두 사람은 싸움을 벌인다. 결국 상관을 폭행하게 된 돈 호세는 군대에 복귀하지 못하고, 밀수꾼들과 함께 떠나게 된다.

3막 한밤중, 산속 밀수꾼들의 은신처

몇 개월 후 밀수꾼들과 함께 사는 생활에 지친 돈 호세는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그의 집착에 질린 카르멘은 더 이상 돈 호세를 사랑하지 않는다. 어느 깊은 밤 에스카미요가 카르멘을 찾아오자 질투에 눈이 먼 돈 호세는 그에게 결투를 신청한다. 그때 돈 호세를 찾아 산속까지 온 미카엘라가 밀수꾼들에게 발견된다. 그녀는 돈 호세에게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전하고, 카르멘 역시 돈 호세에게 어머니에게 돌아가라고 말한다. 돈 호세는 카르멘에게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미카엘라와 함께 떠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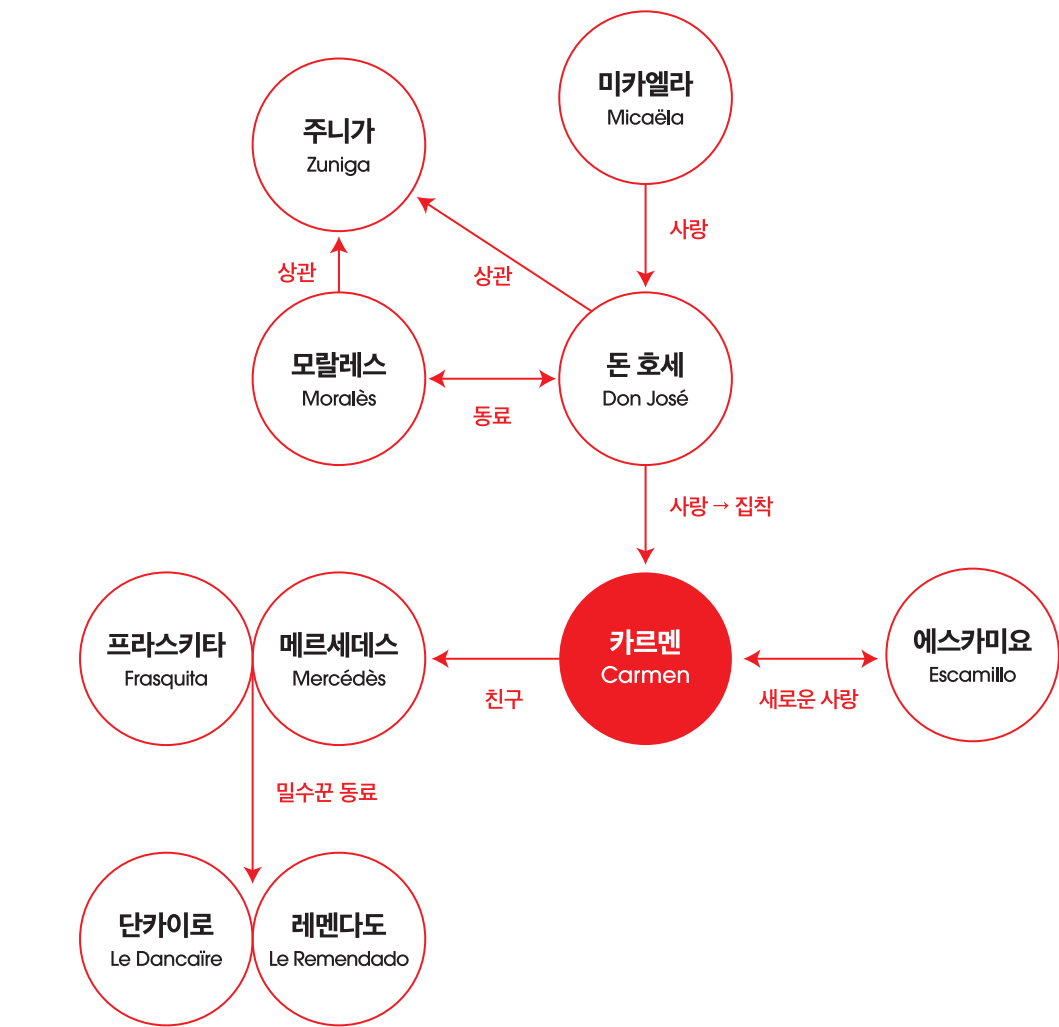
4막 세비야 투우장 앞 광장

화려한 옷차림의 카르멘이 새 연인 에스카미요와 함께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등장한다. 에스카미요가 투우장으로 들어가고, 혼자 남은 카르멘에게 프라스키타와 메르세데스는 돈 호세가 근처에 있다며 조심하라고 경고하지만 그녀는 코웃음을 칠 뿐이다. 그때 돈 호세가 나타나 카르멘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자신과 함께 떠나자고 애원한다. 그러나 그녀는 에스카미요를 사랑한다고 매정하게 잘라 말한다. 격분한 돈 호세는 결국 카르멘을 칼로 찌른다. 카르멘이 숨을 거두자 그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이 카르멘을 죽였다고 고백하며 절규한다.

Charac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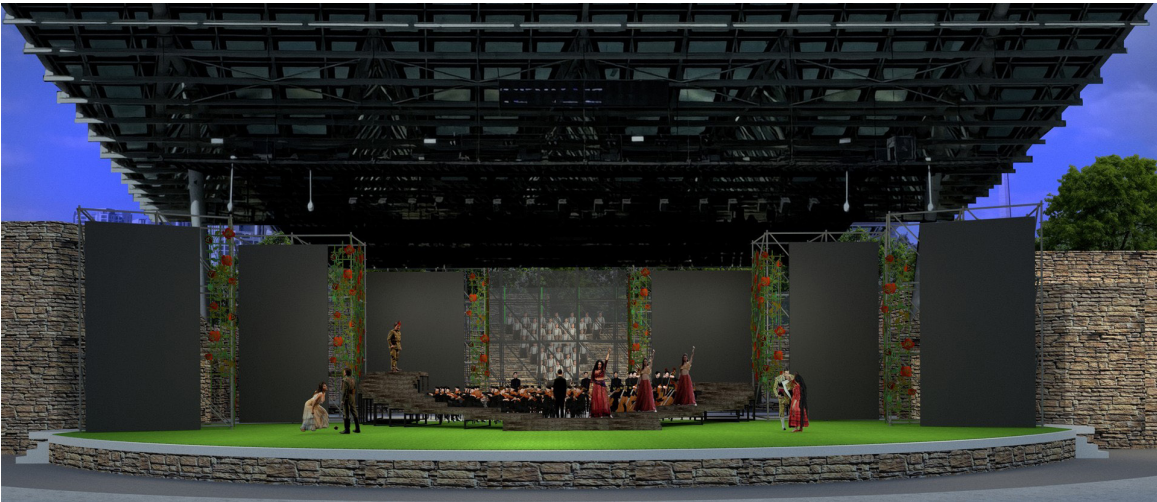
등장인물

카르멘	자유로운 사랑을 추구하는 집시 여인	주니가	돈 호세의 상관
돈 호세	카르멘을 사랑하며 점차 집착에 빠지는 군인	모랄레스	돈 호세의 동료
에스카미요	세비야 최고의 인기 투우사	프라스키타/메르세데스	카르멘의 집시 친구
미카엘라	돈 호세의 고향 친구이자 약혼녀	단카이로/레멘다도	밀수단 동료



Scenic Design

무대디자인



Creative Team

주요제작진



예술감독 이경재
Artistic Director Lee Kyoungjae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블루밍턴 오페라 연출 석사 졸업(M.S.)
- 성균관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박사 수료
- 2016 예술의전당 예술대상 연출상 수상
- 서울시오페라단, 국립오페라단, 대구오페라하우스, 서울 예술의전당, 광주시립오페라단, 대전 예술의전당 등과 함께 오페라 <비밀결혼>, <바스티앙과 바스티엔느>, <피가로의 결혼>, <코지 판 투테>, <돈 조반니>, <마술피리>, <결혼 청구서>, <세비야의 이발사>, <돈 파스칼레>, <사랑의 묘약>, <카르멘>, <라 트라비아타>, <리골레토>, <로미오와 줄리엣>, <팔리아치>, <라 보엠>, <잔니 스키키>, 현대오페라 <한여름밤의 꿈>, <컬류 리버>, <노처녀와 도둑>, <아말과 동방박사들>, 창작오페라 <한울춤>, <사랑방손님과 어머니>, <장충> 등 고전부터 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오페라 작품 연출
- 서울대학교 오페라 연구소 상임연출, 제6대 서울시오페라단 단장 역임
- 현) 서울문화예술포럼 운영위원, 제23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예술감독



지휘 양진모
Conductor Yang Jinmo

-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지휘 전공 졸업
-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오케스트라 지휘과 졸업 및 지휘과 조교 과정, 포스트 최고 연주자 과정 졸업, 시에나 키지아나 아카데미 오페라, 오케스트라 지휘과 졸업
- 알도 체카토 마스터클래스 특별상 수상, 제7회 대한민국 오페라대상 예술상 지휘 부문 수상
- 이탈리아 오르비에토 만치넬리 극장 로시니 <시뇨르 부르스키노>로 데뷔
- 밀라노 국립음악원, 불가리아 소피아 페스티벌, 교토 챔버, 프라임필하모닉, 부산시립, 경북도향, 경기필하모닉, 강남심포니, 뉴 서울필하모닉, 코리아심포니 오케스트라 등 국내외 다수 오케스트라 객원 지휘
- 국립오페라단, 서울시오페라단, 대구오페라하우스 등에서 <라 보엠>, <비밀결혼>, <토스카>,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팔리아치>, <코지 판 투테>, <마술피리> 등 다수 작품 지휘
- '오페라를 만나러 가자 1,2' (폴빛 출판사), '히스토페라' (도서출판 책과 함께, 2025) 저서
- 국립오페라단 아카데미 전임강사 역임, 진주시 이상근 국제음악제 음악감독 역임
- 현) 코레아나 클라시카 오케스트라 예술감독, 명지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교회음악과 교수



연출 이회수
Director Lee Hoesoo

- 로마 국립예술원 무대디자인과, 연출 논문 최고 점수 졸업
- 프라하 STATNI 오페라극장 주최 국제 연출 콩쿠르 아시아 최초 입상 (체코)
- 2013년 제6회 대한민국 오페라대상 연출상 수상, 2017년 제15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오페라 아이다 작품상 수상, 2021년 제19회 한국소극장오페라축제 제작예술상 수상, 2023년 제14회 서울문화투데이 문화대상 최우수상 수상
- 제8회 국제 지중해 페스티벌 초청연출, 쿠바 하바나 국립극장 오페라 <팔리아치> 한국측 연출, 오페라 <아드리아나 르쿠브레르>,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안나 볼레나>, <안드레아 세니에>, <마리아 스투아르다>, <에르나니>, <돈 카를로>, <마술피리>, <파우스트>, <운명의 힘>, <호프만의 이야기>, <라 트라비아타>, <카르멘> 등 다수 작품 연출
- 현) 국민대학교 겸임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출강



Cast

출연진



카르멘 M. Sop. 김정미
Carmen M. Sop. Kim Jungmi

- 이탈리아 키지아나 아카데미 수료, 로마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 수석 졸업
- 알카모 국제콩쿠르 1위 및 특별상, 라우리 볼피 국제콩쿠르 특별상, 스위스 제네바 국제콩쿠르 2위 등 주요 국제콩쿠르 입상
- 트리에스테 베르디 극장 <일 캄피엘로> 오르솔라, 메라노 푸치니 극장 <잔니 스키키> 지타로 데뷔
- KBS교향악단, 서울·부산·대전·인천·광주 시립교향악단, 국립심포니, TIMF 도쿄 필하모닉, 프랑스 메츠 국립, 타이완 국립심포니, 마카오 오케스트라 등 국내외 다수 오케스트라와 협연
- 평창대관령음악제, 스위스 제네바 페트 드 라 뮌지크, 프랑크푸르트 알테 오퍼 신년음악회, 라이프치히 바흐 페스티벌 등 국내외 주요 음악제 출연
- 대만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일 트리티코>, 밀라노 세계엑스포<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등 해외 다수 작품 주역 출연
-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로미오와 줄리엣>, <호프만의 이야기>, <베르테르>, <노르마>, <안나 볼레나>, <카르멘>, <물의 정령>,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등 다수 작품 주역 출연
- 현) 국내외 전문 연주자로 활동 중



카르멘 M. Sop. 최승현
Carmen M. Sop. Choi Seunghyun

- 중앙대학교 음악대학 재학 중 도이
- 이탈리아 로비고 프란체스코 베네체 국립음악원 수학, 파르마 오르페오 국제성악아카데미 졸업, 시에나 키지아나 국제 전문 연주자 아카데미 수석 장학생 수료(바리톤 레나토 브루손 사사)
- 티토 고비 국제콩쿠르 우승, 로카 델레 마치에 국제콩쿠르 2위, 안셀모 콜자니 국제콩쿠르 3위 등 다수 국제콩쿠르 입상
- 포를리에서 오페라 <나비부인>으로 데뷔, 독일 하노버 오디션 만장일치로 오페라 <카르멘> 주역 발탁
- 대한민국 오페라대상 신인상 및 여주주역상 수상
- 이탈리아 로마 오르비에토 솔모나 모차르트 레퀴엠, 프랑스 생테티엔 베르디 레퀴엠 솔리스트 출연
- 이탈리아 부세토에서 바리톤 레오 누치와 오페라 <리골레토> 공연
- 페라라 코무날레 극장 현대오페라 <아나스타시아>, 프라하 국립극장 오페라 <카르멘> 초청 주역 출연, 오페라 <카르멘>, <아이다>, <일 트로바토레>, <안나 볼레나>, <리골레토>, <나비부인>, <운명의 힘> 등 다수 작품 주역 출연
- 현) 전문 연주자로 활동 중



돈 호세 Ten. 정호윤
Don José Ten. Chung Hoyoon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 베를린 국립음대 수료, 브르노 국립 콘서바토리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 동아일보 콩쿠르 1등, 국립오페라 콩쿠르 대상, 벨기에 왕립 베르비에 콩쿠르 대상, 비엔나 벨베데레 콩쿠르 입상
- 비엔나 국립오페라극장, 함부르크 국립극장 전속 솔리스트 역임
- 런던 로열오페라하우스, 빈 국립오페라극장, 베를린 도이치 오페라, 드레스덴 젬퍼오퍼, 함부르크 국립오페라극장,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멜버른 스테이트시어터, 마드리드 레알극장, 베로나 아레나, 볼로냐 코무날레, 바리 페트루첼리, 리옹 국립오페라, 오슬로 오페라하우스, 바르샤바 비엘키, 텔아비브 오페라하우스 등 해외 주요 극장 주역 출연
- 현) 서울사이버대학교 예술대학 학장



돈 호세 Ten. 박신해
Don José Ten. Park Shinhae

- 계명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 성악과 및 동 대학원 졸업
- 이탈리아 노바라 귀도 칸텔리 국립음악원 성악전공 디플로마
- 이탈리아 리날도 펠리초니 국제콩쿠르 2위
- 대구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교향악단, 디오오케스트라, CM오케스트라, 루체심포니오케스트라, 대구시립합창단, 구미시립합창단, 안동시립합창단, 서귀포시립합창단 등 다수 단체 협연
- '메시아', '엘리아', '천지창조' 등 다수 오라토리오 솔리스트 출연
-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베르디 생가 공연)>, <나비부인>, <카르멘>, <투란도트>, <가면무도회>,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잔니 스키키>, <사랑의 묘약> 등 다수 작품 주역 출연
- 현) 계명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 출강, 가곡교실 운영, 전문 연주자로 활동 중

Cast

출연진



에스카미요 Bar. 공병우
Escamillo Bar. Paul Kong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 마르세유 오페라 센터 수료(프랑스 국비 장학생), 프랑스 마르세유 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 서울 국제콩쿠르 1위, 프랑스 툴루즈 국제콩쿠르 1위, 프랑스 파리콩쿠르 1위, 프랑스 마르망드 국제콩쿠르 1위, 프랑스 마르세유 국제콩쿠르 2위, 벨베데레 국제콩쿠르 특별상, 스페인 자코모 아라갈 국제콩쿠르 특별상 수상
- 프랑스 아비뇽 <코지 판 투테> 주역 데뷔
- 현) 전남대학교 성악과 교수



에스카미요 Bar. 오승용
Escamillo Bar. Oh Seungyong

-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음악과 졸업
- 브레샤 국립 음악원 디플롬
- 국립오페라단 상임단원 역임
- 비오티 발세지아콩쿠르, 주세페 디 스테파노 콩쿠르 등 세계 10여개 국제콩쿠르 우승
- 오페라 <보ček>, <살로메>, <안드레아 세니에>, <오텔로>, <아이다>, <토스카>, <팔리아치>, <마농 레스코>,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피가로의 결혼> 등 다수 작품 주역 출연
- 현) 국내외 전문 연주자로 활동 중



미카엘라 Sop. 이명주
Micaëla Sop. Lee Myungjoo

- 서울예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서혜연 교수 사사)
- 독일 뮌헨 국립음대 디플롬(독일 학술교류처 예술분야 장학생) 및 최고 연주자 과정 졸업
- 오스트리아 린츠 주립극장 솔리스트 역임
- 크리스토프 에센바흐, 정명훈, 프란츠 벨저-뫼스트, 데니스 러셀 데이비스 등 세계적인 지휘자들과 함께 빈 필 앙상블, 뮌헨 방송오케스트라,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일 드 프랑스 국립오케스트라, 서울시립교향악단 등 다수 협연
- 서울국제음악제, 통영국제음악제, 평창대관령음악제, 하슬라국제예술제 등 국내 다수 음악제 출연
- 오페라 <라 보엠>, <라 트라비아타>, <나비부인>, <토스카>, <일 트로바토레> 등 다수 작품 주역 출연
- 현) 국내외 전문 연주자로 활동 중



미카엘라 Sop. 이윤경
Micaëla Sop. Yi Yunkyoung

- 계명대학교 성악과 및 동 대학원 졸업
- 로마 AIDM, 로마 아레나 아카데미아 졸업
- 중앙콩쿠르 1위, 이탈리아 벨리니 국제콩쿠르 우승, 요미우리 신문사상, 이탈리아 음악협회 특별상
- 대한민국 음악대상, 2016년을 빛낸 성악가상, 2018년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성악가상, 2025 사야오페라어워즈 여자주역상 수상
- 서울 평화상 시상식, 여수 세계박람회 기념공연, 베네수엘라 '엘 시스템아 초청독창회', 도쿄 '아시아 오케스트라 워크', 런던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Music of Today' 시리즈 동양인 최초 초청 등 다수 공연 협연
- KBS 불후의 명곡, 더 콘서트, 열린음악회 출연
- 불가리아 소피아국립극장, 이탈리아 벨리니오페라극장, 베이징 센트럴뮤직홀, 런던 왕립극장, 도쿄 오페라시티, 도쿄문화회관, 히로시마 아스텔극장, 중국 란저우극장 등 다수 극장 주역 출연
-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라 보엠>, <리골레토>, <사랑의 묘약>, <카르멘>, <세비야의 이발사>, <로미오와 줄리엣>, <레드슈즈>, <박쥐>, <메리위도우> 등 다수 작품 주역 출연
- 현) 계명대학교 공연예술대학 성악과 초빙교수

Cast

출연진



주니가 Bass 진영국
Zuniga Bass Jin Youngkug

- 명지대학교 성악과 학사
- 독일 바이마르 국립음악대학교 성악 최고 연주자과정, 뉘른베르크 국립음악대학교 오페라과 석사
- 이탈리아 이모라 에베 스티나니 국제콩쿠르 2위, 조지아 바투미 골든 보이즈 콩쿠르 특별상,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그란디 보치 오페라 콩쿠르 특별상, 프랑스 마르망드 국제콩쿠르, 이탈리아 빈살라체 도로 콩쿠르, 덴마크 로리츠 멜키오르 국제 바그너 성악 콩쿠르 파이널 리스트
- 뤼벡 시립 극장 오페라 스튜디오 역임, 스위스 LAC 루가노 '글로벌 문화재단 오페라 평화 아카데미' 아티스트, 2024 바이로이트 바그너 페스티벌 장학생
- 오페라 <마술피리>, 독일 뤼벡 시립 극장 <나비부인>, <비바 라 맘마>, <시몬 보카네그라>, 독일 에틀링겐 성 오페라 페스티벌 <마탄의 사수>, 스웨덴 오페라 파 스캐렛 페스티벌 <투란도트>, 독일 에어푸르트 국립극장 <돈 조반니>, 독일 니더바이에른 주립극장 <파르지팔>, <투란도트>,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국립극장 <루살카> 등 다수 작품 출연
- 슬로베니아 마리보르 국립극장 26/27시즌 <탄호이저> 란트그라프 역으로 데뷔예정
- 독일 니더바이에른 주립극장 솔리스트 역임
- 현) 국내외 전문 연주자로 활동 중



모랄레스 B. Bar. 한준헌
Moralès B. Bar. Han Junheon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및 동대학원 졸업
- 파올라 레오리니 국제 콩쿠르 1위
-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돈 파스칼레>, <달의 세계>, <피가로의 결혼>, <라 보엠>, <코지 판 투테>, <리골레토>, <사랑의 묘약>, <신데렐라>, <피노키오>, 창작오페라 <박희광>, <선덕여왕> 등 다수 작품 출연
- 현) 경산시립합창단 베이스 단원, KAN엔터테인먼트 소속 성악가



프라스키타 Sop. 윤성희
Frasquita Sop. Yoon Sunghwe

- 성신여자대학교 성악과 수석 졸업
- 이탈리아 볼로냐 국립음악원 만점 졸업
- 난파 콩쿠르 전체 대상, 성정 콩쿠르 2위, 치타 디 볼로냐, 치타 디 테라모 국제콩쿠르 1위, 레온까발로 국제콩쿠르 2위, 딸리아비니 국제콩쿠르 등 다수 국제콩쿠르 입상
- 서울시향, 대구시향, 경북도향, 군산시향 등 다수 단체 협연 및 성남시립합창단, 대구시립합창단, 김해시립합창단 등에서 '메시아', '천지창조', '전쟁미사', '샬리맨 칸타타' 등 다수 오라토리오 솔리스트
- 서울시오페라단, 국립오페라단, 예술의 전당, 대구오페라하우스 등에서 오페라 <마술피리>, <돈 파스칼레>, <마탄의 사수>, 창작 오페라 <달이 물로 걸어오듯>, <춘향탈목> 등 다수 작품 주역 출연
- 성신여대, 명지대 강사 역임
- 현) 전문 연주자로 활동 중



메르세데스 M. Sop. 정세라
Mercédès M. Sop. Jung Sera

- 독일 베를린 한스아이슬러 국립음대 학사 및 석사 졸업, 밀라노 도니제티 아카데미 수료
- 로마 베냐미노 질리 콩쿠르, 이제오디브레사, 알바니아 마리에 크랴야 콩쿠르, 중국 닝보콩쿠르 특별상 등 다수 콩쿠르 입상
- 국립오페라단 갈라콘서트 '오페라 여행' 출연
- 베를린 콘서트하우스 '말러 교향곡 4번', 원주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바흐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베토벤 '9번 교향곡', 헨델 '메시아', 바흐 '마태수난곡', 로시니 '작은미사' 등 다수 오라토리오 솔리스트
- 국립오페라단, 서울시오페라단, 대구오페라하우스, 광주시립오페라단, 성남문화재단 등에서 <헨젤과 그레텔>, <피가로의 결혼>, <파우스트>,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마술피리>, <박하사탕>, <심청> 등 다수 작품 출연
- 현) 경기예고, 고양예고, 인천예고 출강, 전문연주자로 활동 중

Cast

출연진



단카이로 Ten. 유호제
Le Dancaire Ten. You Hoje

- 대구예술대학교 성악과 졸업, 계명대학교 성악과 일반대학원 석사 졸업
- 독일 카셀 시립음악대학 전문연주자과정 성악과 졸업
- 국립오페라단 갈라콘서트 <리골레토> 만토바역 출연, 독일 카셀 콘체르트코어, 대구시립, 경주교향악단, 부산 신세기필하모닉, 수성 필하모닉, 대구 필하모닉, 영남 심포니, 펠리체심포니 등 다수 단체 협연
- 오페라 <나부코>, <오텔로>, <살로메>, <장미의 기사>, <리골레토>, <마술피리>, <피가로의 결혼>, <박쥐>, <집시 남자>, <잔니 스키키>, <외투>, <일 트로바토레>, <카르멘> 등 다수 작품 출연
- 현) 계명대학교 공연예술대학 성악과 출강, 전문연주자로 활동 중



레멘다도 Ten. 정진환
Le Remendado Ten. Jeong Jinhwan

- 계명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 성악과 및 동대학원 졸업
- 이탈리아 밀라노 아카데미 성악전공 졸업, 밀라노 치비카 성악과 최고연주자 과정 및 보컬코치 졸업, 밀라노 음악원 성악과 최고연주자 과정 졸업
- 이탈리아 만토바 오페라 <라 보엠> 로돌포 역 초청, 밀라노 아비아테그라소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협연
- '천지창조', '대관식 미사' 등 다수 오라토리오 솔리스트 출연
- 오페라 <사랑의 묘약>, <라 트라비아타>, <나부코>, <토스카>,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잔니 스키키> 등 다수 작품 출연
- 현) 전문연주자로 활동 중

Cast

출연단체



디오오케스트라
Daegu International
Opera Orchestra

디오오케스트라(Daegu International Opera Orchestra)는 2004년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오케스트라로 창단된 국내 유일의 오페라 전문 오케스트라로, 대구오페라하우스의 주요 기획공연과 대구국제오페라축제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전문 연주단체로 성장해왔다. 오페라 연주 경험이 풍부한 전문 연주자들을 중심으로 고전부터 현대 창작 오페라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과 성악·무대와의 유기적인 호흡을 강점으로 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공공문화예술 사업과 융복합 콘텐츠를 통해 오페라와 클래식 대중화 및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음악감독 박은지 기획실장 이은배 공연담당 정은영 악보담당 박상은 김은석

바이올린 I 박은지 박민서 김재은 노선균 김현비 장세희 장유진 김하은 김시현 김지현

바이올린 II 장혜지 장혜진 양수빈 이지애 이소희 류가현 이은영 이선형

비올라 조재형 김효원 박선영 조민지 김예송 박채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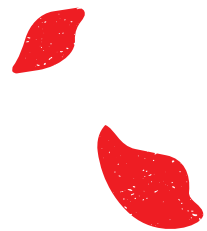
첼로 강윤선 설예은 박소희 최재영 손문주 박소현 콘트라베이스 함소현 김지정 구소정 박민혁

플루트 백선미 이한나 오보에 배민주 김재윤 클라리넷 김민수 전다양 바순 조혜연 조윤주

호른 양삼영 김태우 송상호 객준호 트럼펫 전성화 이혜연

트럼본 김진욱 이민정 베이스트럼본 이태웅 팀파니 권혜진 퍼커션 이희정 송미경 허동훈

하프 이은하



Cast

출연단체



대구오페라콰이어 Daegu Opera Choir

대구오페라콰이어는 예술성과 열정을 갖춘 전문 성악가들로 구성된 오페라 전문 합창단이다. 2019년 창단 이래 대구국제오페라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오페라 제작과 기획공연에 참여하며 수준 높은 음악성과 무대 역량을 선보이고 있다.

오페라를 중심으로 콘서트 오페라, 합창 음악회, 기획 연주 등 폭넓은 무대를 통해 레퍼토리를 확장하고 있으며, 창작 오페라와 합창곡 등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지역 예술가문화예술기관과의 협업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청년 성악가들에게 전문적인 무대 경험과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오페라와 클래식 음악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무대를 선보이며 지역 공연예술 활성화와 문화예술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대표 김지영 **음악감독** 김성한 **단무장** 배은경 **부지휘자** 현대명 **반주자** 류지원 임윤지

소프라노 김서현 박주는 서아영 신유경 이나은 이다영 이서연 전영민 정경진 정원정 박예람(트레이너)

알토 권민선 김채윤 문은초 박수정 박지원 손선애 이진아 정주현 최선주 한혜원 홍사랑

테너 민경휘 서영덕 윤덕환 이승현 이유현 임현빈 전지훈

베이스 이승훈 조해준 김준년 박종섭(총무)



카이로스 댄스 컴퍼니 Kairos Dance Company

그리스어로 '특별한 시간의 순간'을 뜻하는 KAIROS는 춤을 통해 관객에게 특별한 예술적 경험을 선사하는 현대무용단으로 현대사회의 다양한 현상과 이야기를 무용의 언어로 재해석하고, 오페라·뮤지컬·연극 등 여러 장르와의 융합을 통해 현대무용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2019년 대구광역시 지정 전문예술단체로 선정된 이후 활발한 창작과 공연 활동을 펼치는 한편, 무용교육을 통해 시민과의 예술적 소통도 이어가고 있다.



류정인



전소영



김범수



권윤형



가오야



동명량



김병규



도희주

Staff

제작진



안무가 김영남
Choreographer Kim Youngnam

- 대구가톨릭대학교 무용학과, 공연학 석사 졸업
- 제25회 대구무용제 대상, 안무상 수상, 17회 뉴댄스페스티벌 올해의 안무가상 수상, 2019 대구예술상 수상, 2021 대구광역시 표창, 35회 지랑스런 구민상(대구광역시 달서구) 수상
- 대구시립무용단 단원 역임
- 수창청춘맨션 운영위원, 28회 전국무용제 집행위원, 달서문화재단 달서만개 편집위원, 한국무용협회 대구광역시지회 이사, 대구가톨릭대학교 실용음악학과 산학협력교수 역임
-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독일 보름시립극장, 멕시코 킬라로페즈 국제현대무용축제, 일본 사이국제무용제, 태국 뮤직 챔피언십, 호치민-대구 도시간 무용교류공연, 사아레마 오페라페스티벌 초청공연 등 다수 국외 작품 안무
- 오페라 <카르멘>, <리골레토>, <라 트라비아타>, <오텔로>, <춘향>,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안드레아 세니에> 등 다수 국내외 작품 출연 및 안무
- 현) 대구광역시 전문예술단체 카이로스 대표, 문화공간 카이로스 대표, 달서문화재단 이사, 중구문화원 이사, 달성예술극장 운영위원



무대디자인 신재희
Scenic Design Shin Jaehee

- 연세대학교 생물학과 졸업, 이탈리아 로마 국립미술원 무대미술과 졸업
- 2006년 소극장 뮤지컬 <빙고> 무대·의상·소품디자인 데뷔
- 2021 제14회 대한민국오페라대상 예술상 수상
- 오페라 <나비부인>, <선비>, <아이다>, <돈 카를로>, <운명의 힘>, <파우스트> 창작오페라 <윤심덕, 사의찬미>, <여우던>, <이상의 날개>, 음악극 “정조와 햄릿”, 오페라 <이상의 날개> 등 다수 작품 무대디자이너 및 미술감독
- 현)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공연예술스쿨 출강



조명디자인 문길환
Lighting Design Mun Kilhwan

- 영국 에든버러 페스티벌, 독일 K15, 에스토니아 사아레마 오페라 페스티벌, 일본 히로시마 아스텔프라자, 헝가리 에르셀 극장, 이탈리아 페라라 시립극장 등 국내외 주요 극장 및 국제 페스티벌 조명디자인 참여
- 오페라 <코지 판 투테>, <라 보엠>, <마술피리>, <헨젤과 그레텔>, <박쥐>, <피가로의 결혼>, <나비부인>, <사랑의 묘약>, <라 트라비아타>, <카르멘>, <세비야의 이발사>, <리골레토>, <돈 카를로>,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투란도트>, <살로메>, <장미의 기사>, <오텔로>, <아이다>, <안드레아 세니에> 등 작업
- 연극 ‘반아아저씨’, ‘유리동물원’, 무용 ‘햄릿 에피소드’, ‘코리아 더블발’, ‘ICE & WATER’ 등 작업



영상디자인 장수호
Video Design Jang Soho

- 중앙대학교 예술공학 전공
- 순천대학교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 스쿨 교수 역임
- 초대형 미디어아트 및 실감미디어 기반 메가이벤트·공연·전시 영상 제작
- 2020 서울미디어아트 프로젝트 선정작가
- 오페라 <아이다>, <나부코>, <카르멘>, <라 트라비아타>, <투란도트>, <사랑의 묘약>, <마술피리>, <라 보엠>, <돈 조반니>, <파우스트>, <안드레아 세니에>, <피가로의 결혼>, <운명의 힘>,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레드슈즈>, <봄봄 동승>, <한국 오페라 베스트 컬렉션> 등 다수 작품 영상디자인
- 현) 국립순천대학교 애니메이션&문화콘텐츠 스쿨 교수



분장디자인 임유경
Make-up Design Yim Yookyung

- 뮤지컬 ‘캣츠’, ‘오페라의 유령’, ‘그리스’, ‘레 미제라블’, ‘토지’ 등 다수 뮤지컬 분장디자인
- 이탈리아 밀라노, 이탈리아 고모 오페라 페스티벌, 이탈리아 몬짜, 오스트리아 빈, 체코 프라하, 일본 도쿄, 나고야, 중국 북경, 상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바탐 등 해외공연 수석 회 참여
- 정화예술대학교 겸임교수, 추계예술대학교 강사 역임
- 오페라 <운명의 힘>, <아이다>, <투란도트>, <가면무도회>, <나비부인>, <토스카>, <라 보엠>, <리골레토>, <카르멘>, <춘향전>, <심청전> 등 국내공연 1,200여 작품 디자인 및 실무
- 현) 전문분장팀 Face off 대표, 서경대학교 겸임교수, 인천대학교 강사

Staff

제작진



오페라코치 은빛나
Opera Coach Eun Bitna

- 계명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 피아노과 및 동대학원 졸업
-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오페라코치과 졸업, 밀라노 라 스칼라 극장 아카데미 오페라코치과 디플로마
- 오토리노 레스피기 국제콩쿠르 1위, A.I.D.M 국제콩쿠르 입상
- 2024 사야오페라어워즈 수상
- 세계적인 지휘자 리차드 보닝, 파비오 루이지, 크리스토프 에센바흐 등과 함께 부세토, 카몰리 등지에서 콘서트
- 오페라 <리골레토>, <아이다>, <나부코>, <라 트라비아타>, <토스카>, <라 보엠>, <나비부인>, <투란도트>, <안드레아 세니에>, <피가로의 결혼>, <코지 판 투테>, <마술피리>, <후궁으로부터의 도주>, <세비야의 이발사>, <신데렐라>, <장미의 기사>, <심청> 등 다수 작품 오페라 코치
- 현) 한국예술종합학교, 계명대학교, 서울대학교 출강



반주자 박선민
Accompanist Park Sunmin

- 영남대학교 피아노과 졸업 및 동대학원 졸업
-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 마스터과정 수료, 도니제티 아카데미 반주 디플로마
- 영남대학교 강사, 경북도립예술단 피아니스트 역임
- 2024 사야오페라어워즈 수상
- '카르미나 부라나', '베르디 레퀴엠', '포레 레퀴엠', '메시아', '대관식 미사', '나인 심포니' 등 다수 합창곡 연주
-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시립오페라단 등에서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사랑의 묘약>, <투란도트>, <아이다>, <나비부인>, <마술피리>, <토스카>, <돈 파스칼레>, <팔리아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박쥐>, <카르멘>, <리골레토>, <세비야의 이발사>,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라 보엠>, <장미의 기사>, <일 트로바토레> 등 다수 작품 참여
- 현) 대구오페라하우스 피아니스트, 대구예술영재교육원 강사, 대구음악협회 이사, 전문연주자로 활동 중



조연출 한진아
Assistant Director Han Jina

- 국민대학교 음악학부 성악전공 학사 졸업
- 국립오페라단, 서울시오페라단, 서울문화재단, 성남아트센터, 대구오페라하우스, 대전예술의전당, 클래식부산, 낙동아트센터, 글로리아오페라단, 누오바오페라단, 라벨라오페라단, 노블아트오페라단, 베세토오페라단, 강원오페라앙상블 등에서 <마술피리>, <에르나니>, <아이다>, <카르멘>, <안나 볼레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팔리아치>, <사랑의 묘약>,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파우스트>, <운명의 힘>, <리골레토>, <돈 조반니>, <라 트라비아타> 등 다수 작품 조연출



Production Staff

프로덕션 스태프

- 예술감독 이경재
- 지휘 양진모
- 연출 이회수
- 무대디자인 신재희
- 영상디자인 장수호
- 영상디자인 어시스트 이여진
- 조명디자인 문길환
- 분장디자인 임유경
- 무대감독 박병달
- 무대조감독 원현지
- 조명감독 최진영
- 음향감독 차광석 조원호
- 자막 제작 및 오퍼레이터 허성훈
- 오페라코치 은빛나
- 반주 박선민
- 연출팀 한진아 김하영 신서영 정수인
- 의상 코디네이션 현지무대의상
- 분장팀 페이스오프 Face off
 - 실장 임경식 팀장 조용선 이정민 최윤재
 - 임그린 백연주 김현정 김윤하 김도연 장예은
 - 장사랑 박예신 박소연 김윤서 김채영
- 의상팀 팀장 김현지 김창근 이지예 김명준
- 무대크루 구민우 김태현 오주형 이승준 이아영 이정민 최대현
- 조명크루 황인철 심유섭 배수영 류수진 황도성 이승준
- 음향크루 김예동 김서연 김동민 최지희 전현주
- 사진촬영팀 용스튜디오
- 영상촬영팀 FS미디어

-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오페라하우스
- Daegu Foundation for Culture & Arts
- Daegu Opera House
- 공연예술부장 김수정
- 무대시설부장 강영구
- 공연기획팀 팀장 최은정 이한나 박선영 최서윤 한규리
최보윤 양정화
- 국제교류팀 팀장 김민정 박형기 심유진 박새별 강지윤
- 홍보마케팅팀 팀장 정유경 김유리 백지연 최수민
- 무대예술팀 팀장 박병달 문길환 차광석 김태학 박준환
정진섭 조원호 김남오 최진영 이남문 조현우
- 시설관리팀 팀장 이철훈 장성훈 김경도 김동현
- 11기 오페라팬 김혜영 박윤정 박채린 오승미 정다은
- 19기 오페라필 구묘선 권민수 김규리 김다현 김동현 김민채
김보영 김서현 김수아 김예주 김은미 김은선
김주연 김채원 도예은 도인하 류승운 문경은
박인기 박제민 박지은 박한별 백지영 오서빈
오성준 옥지연 윤혜원 이경연 이나경 이세은
이수인 이조은 이효식 장가은 장세희 장지웅
정다은 최성경 최영주 황금선

